

광주·전남 상반기 산업용 전력 수요 3년전의 74%

전력 판매 코로나 영향 3년 감소 올들어 회복세...산업용 가장 더더 주택용은 3년전 비해 86% 수준

올해 상반기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코로나19 회복세가 더디지면서 2019년의 73%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6월 광주·전남 전력 판매량은 2181만MWh(메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9만MWh)보다 5.4%(112만MWh)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 전력 판매량은 435만MWh에서

445만MWh로 2.4% 증가했고, 전남은 1635MWh에서 1736MWh으로 6.2% 늘었다.

올해 들어 광주·전남 전력 판매량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의 81.1% 수준에 그쳤다.

2017년 상반기 2678만MWh이었던 지역 전력 판매량은 역대 최고 폭염을 기록한 지난 2018년 2740만MWh으로 뛰었다. 이후 2689만MWh(2019년)→2440만(2020년)→2069만MWh(2021년)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반기 전력 판매량이 반등했다.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전력 판매량을 종류별로 비교해보면 산업용 회복이 가장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올 상반기 1282만MWh로, 전년 같은 기간(1207만MWh)보다 6.2%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19년 상반기(1740만MWh)의 73.7%에 불과한 수준이다.

광주·전남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전년보다 1.1%(237만MWh→240만MWh) 증가했으며, 2019년의 86.4% 수준에 그쳤다.

자영업자가 주로 쓰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은 전년보다 5.4%(338만MWh→356만MWh) 늘었다. 이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 상반기(420만MWh)의 84.8% 수준이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이달 들어 정체 전선 영향을 받으면서 지난해 최대전력 최고 기록을 경신

하지는 않았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이달 9일 오후 8시 기록한 6108MW(메가와트)가 최대전력으로 기록됐다.

최대전력은 하루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를 뜻한다. 지난 7월 광주·전남 최대전력은 7월6일 오후 8시 6088MW였다.

광주·전남지역 전력수요 '피크'는 지난해 7월 세운 6193MW이다. 이는 최악의 폭염이 있었던 지난 2018년 7월(5736MW) 기록을 훌쩍 넘는 수치다.

한국전력은 오는 9월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나주 분사와 15개 지역본부에 전력수급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배달앱 '떡깨비' 활성화 전남신보 주문 릴레이 행사

전남신보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이 16일부터 전남 공공배달앱인 '전남 떡깨비'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배달 주문 릴레이 행사를 실시한다. 지난 7월14일 전남도가 출시한 '전남 떡깨비'로 음식을 주문하고 SNS로 인증 후 다음 참여기관을 지목해 주문 행사에 동참을 유도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 떡깨비'는 기존 배달 앱과는 달리 가입비와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 또한 10분의1 수준인 1.5%만 지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익, 소비자는 착한소비'를 이끄는 전남도의 공공배달앱이다.

첫 번째 주자로 참여한 전남신보는 다음 참여기관으로 전남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목했으며 지난 달에도 창립 21주년을 기념해 임직원 모두 2회 이상 주문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정양수 이사장은 "이번 릴레이 행사를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착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기름값 6주 연속 하락 당분간 하락세 이어질 듯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내렸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당 광주 1762.35원·전남 1814.36원으로, 한 달 전보다 각각 12.9%(-259.92원), 12.1%(-249.72원) 내렸다.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1789.04원으로, 한 달 전(2049.04원)보다 12.7%(-260원) 떨어졌다.

휘발유값 하락이 시작된 지난 7월1일 가격과 비교하면 광주는 16.5%(-348.84원), 전남은 14.7%(-311.79원) 떨어졌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새 16.0%(-339.8원) 내렸다.

지역 주유소 경유 가격도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 주유소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1당 광주 1872.86원·전남 1912.88원으로, 지난달 1일 가격(광주 2144.36원·전남 2155.97원)보다 각각 12.7%(-271.5원), 11.3%(-243.09원) 떨어졌다.

경유 가격도 내림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휘발유 평균가와 1당 100원 안팎 차이가 난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이번 주에도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우하향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동절기에 가까워질수록 경유 수요가 늘기 때문에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는 당분간 좁혀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보·땀 물고기 생태통로 어도(魚道)사진 공모전 농어촌공사 10월5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5회 어도사진 공모전' 응모작을 16일부터 오는 10월5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5번째로,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농어촌공사가 주관한다.

응모작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어도와 수산생물이 어도를 이용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면 된다.

어도(魚道)는 강과 하천에 설치된 보나 댐 같은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에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생태통로를 말한다.

전국에 약 5000여 개가 있으며, 해수부와 공사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응모 부문은 일반카메라와 휴대폰으로 나뉘며 부문별로 1인당 3점까지 국가어도정보시스템(fishway.go.kr)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접수된 응모작은 주제부합성, 작품성, 활용도, 형식준수 등의 심사를 거친다. 오는 11월 총 24점에 대해 9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자영 어촌수산처장은 "응모작이 많아지면서 어도 정보를 담고 있는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이용자 수도 함께 늘어 공모전이 어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에 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복삼계탕 드시고 힘 내세요" 광주은행 송중옥(왼쪽 3번째) 은행장 등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문인(오른쪽 2번째) 광주북구청장 등은 말복을 맞아 최근 북구 두암동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전복삼계탕 250인분을 대접했다. <광주은행 제공>

상반기 14조 적자 낸 한전 "원가 기반 전기요금 개편해야"

지난해 대비 14조1160억원 증가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한전은 올 상반기 결산 결과를 발표하며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원가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탓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며 원가주의에 기반을 둔 합리적 전기요금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전이 지난 12일 발표한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전 영업손실은 14조30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손실금액이 14조116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한전 매출은 31조992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8조6848억원)보다 11.5%(3조3073억원) 늘었다.

올해 1-6월 연료비 조정요금 단가는 kWh(킬로

와트시)당 0원으로, 전년 감액분(kWh당 -3.0원)이 원상 복구됐다. 여기에 올해 4월부터는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이 kWh당 4.9원, 기후환경요금 kWh당 2.0원이 인상됐다. 이번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한전은 올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인상하며 올해 인상 폭을 모두 소진했다.

올 상반기 전력판매량이 늘고 요금이 인상되면서 한전 매출은 증가했지만, 국제 유가 등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비용이 매출액을 훌쩍 넘었다.

영업비용은 지난해 상반기 28조8721억원에서 올해 46조2954억원으로, 60.3%(17조4233억원) 급증했다.

올해 들어 한전 자회사 연료비는 6조8239억원,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9조6875억원 증가했다. 한전 측은 이같은 연료비·전력구입비 증가에 대

해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증가하고, LNG(액화천연가스)·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전력시장가격(SMP)이 2배 이상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발전 및 송배전설비 취득에 따른 증가상각비가 증가하면서 영업비용이 9119억원 증가했다.

한전 측은 "한전의 위기 상황은 단지 개별 기업으로서의 경영 악화나 생존 문제가 아닌 국가 전력 생태계 전반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원가주의에 기반을 둔 합리적 전기요금 개편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사상 최대 영업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그룹사 사장단과 '비상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부동산, 출자지분, 해외사업 등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